

社會主義體制의 對內的 갈등과 對外經濟政策

金 世 源*

<目 次>

I. 計劃經濟와 貿易政策	III. 重要諸國內 對外經濟政策의 發展
1. 國際貿易과 마르크스的 接近	1. 유 고
2. 貿易理論의 發展	2. 청가리
II. 經濟改革과 對外經濟政策	3. 소 련
1. 經濟發展의 停滯와 原因	4. 중 국
2. 經濟改革의 內容과 意義	
3. 對外經濟政策의 變化	

中共이 1970년대末 이후 鄧小平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소련이 1980년대中반 고르바초프體制의 등장 이후 本格的으로 對外經濟開放政策을 추구하여 오고 있다. 이 두 國家가 社會主義 諸國內에서 兩大 主軸을 形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對外政策基調의 变화는 이제 둘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轉換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유고는 당초부터 소련式의 教條主義的 經濟運營에서 탈피하여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를 택하여 오고 있거나와 청가리 및 체코를 비롯한 많은 東歐諸國들을 이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經濟改革을 시도하였다. 청가리에 있어서는 「新經濟매카니즘」(new economic mechanism)이라는 名分아래 일부 私有를 인정하고 의사결정의 分散을 추진하여 왔으며 체코 역시 社會主義의 多元主義(socialist pluralism)를 추구하고 있다.⁽¹⁾

또 이러한 經濟改革의 근본적인 취지中의 하나가 對外經濟的 側面에서 보다開放政策에 두어지고 있음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한 國家의 經濟運營에 있어서 기초, 방향 또는 变화는 對外經濟政策의 遂

* 서울大 社會大, 國際經濟學

(1) Cae-One Kim, *Socialist Economic Reform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NU,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9권 2호, 1987, 9. 참조.

行에 반영된다. 바꾸어 말한다면 대외경제정책은 國內經濟目標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간 社會主義諸國內 進行되어 온 對外政策의 변화는 곧 經濟改革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本稿에서는 주로 세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피고자 한다.

첫째, 社會主義諸國이 채택하고 있는 計劃經濟에 있어서 對外貿易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로서 이를 어떻게 定義하고 있느냐는 視角에 따라 貿易政策의 形態와 內容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對外貿易은 市場經濟에 있어서는 비교우위理論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政府의 獨占 아래 있으므로 貿易政策 그 자체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둘째, 사회주의 제국內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경제개혁을 총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한마디로 경제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는 경제성장이나 발전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長期間 정체를 담습하기 때문이며 이는 社會主義的 理念 및 理論과 現實間의 괴리를 반영하기도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제국內 시도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주로 貿易政策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겠다. 이와 함께 실제로 유고, 헝가리, 中國 및 소련과 같이 重要諸國內 事例를 概括코자 하는데, 이들이 代表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고의 경우 노동자自管理制度(worker's self-management system)에 소유, 운영되는 기업들이 市場에서 서로 競爭함으로써 두 體制의 장점을 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獨特한 면을 갖고 있다. 헝가리는 社會主義圈內에서 對外貿易依存度가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가장開放的인 무역정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또 가장 먼저 改革에 착수한 국가이기도 하다. 中國은 1970년代末에 이르러 헝가리의 模型을 본받아 對外開放으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그 幅이나 進展에 있어서 다른 어느 社會主義國家보다도 앞서고 있으며 또 特有의 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주의제국內 典型的인 計劃經濟의 모형을 제시해 온 소련이 經濟改革과 함께 對外開放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은 理論이 갖는 現實的 한계를 말하여 준다.

I. 計劃經濟와 貿易政策

1. 國際貿易과 마르크스的 接近

주지하다시피 마르크스 經濟理論의 주요관심은 資本主義體制의 內在的 모순에 대한 비판에 두어지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노동가치론(labour theory of value), 잉여가치(surplus value)의 존재 및 착취(exploitation)의 현상 등이 中心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體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論理的 展開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外國貿易의 역할은 거의 論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무역은 商品 및 서비스의 交換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價格이 媒介의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商品의 가격은 價值에 의하여 「支配되는데」, 이러한 商品의 價值는 그 生産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必要한 勞動時間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Marx, 1961:38) 즉 모든 商品은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다는 共通的인 要素를 갖고 있으므로 사회적 平均概念에 따라 얼마만큼의 노동이 投入되었느냐가 商品間 價值를 비교하는 척도가 值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가치설은 國際貿易으로도 그 응용이 확대될 수 있다. 理論上 國際價值는 去來對象國 국민가치의 平均值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과 해당상품을 국제시장에 供給하는 輸出國內 社會的 條件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노동량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제가치가 국제시장에 있어서 價格形成을 결정하는 기초적 요소가 된다.

그간 마르크스의 勞動價值論이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²⁾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거니와 科學的인 視角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未備點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이 理論은 生産규모에 대한 需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不變費用이라는 非現實的인 가정을 완화한다면費用은 수익체증이든 또는 수익체감이든 產出規模에 無關할 수 있으며 따라

(2) 例로 A. Boltho, *Foreign Trade Criteria in Socialist Econom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 7 以下.

서 價格은 기업이 平均費用曲線의 어느 產出點을 指하느냐에 의하여 달라지게 된다.

다음, 이 理論은 가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 이외의 다른 要素들을 간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로 土地나 自然資源에 대한 貨貸 또는 資本에 대한 利子 등이 무시됨으로써 勞動만이 최소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生產部門에 있어서一律的인 貨金率 및 利潤率로 표시되는 同質의 노동과 자본, 完全競爭, 그리고同一의 有機的 資本構成이前提되므로 新古典的 價格理論中에서도 극히 특별한 경우에만 이 理論이 적용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理論의 연장인 「國際價值(international value)」 역시 실제 國際貿易에 적용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商品間交換이 對等(equivalent)하려면 이들이同一한 勞動量을 內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착취가 발생한다.⁽³⁾ 그렇다면 國際貿易은 거의 전부가 非對等的(non-equivalent)이며 따라서 노동에 대한 착취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各國間生產條件이나 生産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社會主義諸國內 정부당국에 의하여 설정되는 가격은 마르크스的 勞動價值論에 기초하되 나중에도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이 추구하는 特定 經濟目標를 고려하여 보다 신축적이고도 合理的인 방법으로 결정된다. 또 이러한 理論이 社會主義諸國의 對外貿易에 있어서 적용된 적도 거의 없다. (Boltho, 1971:23).

對外貿易關係는 종체적으로 대상국에 따라 市場經濟를 택하고 있는 資本主義圈과 社會主義諸國의 두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前者와의 去來에 있어서는 社會的 勞動으로 표시된 각 상품의 國內費用과 國際市場에서의 外貨展示價格을 비교한 후 國제적 구매력이 큰 경우 輸出되며 반대의 경우 輸入된다. 따라서 순수하게 商品의 價值만이 기준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歪曲된 價格이나 不完全한 勞動價值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社會主義諸國內 換率이 巨視目標나 變數의調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歪曲은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 社會主義諸國內, 특히 CMEA 會員國間 貿易去來에 있어서 사용되

(3) 이러한 측면은 1970년대 들어서서 A. Emmanuel 및 S. Amin 등에 의한 不等價交換(Unequal Exchange) 이론에 의하여 발전된다.

는 가격은 해당국간 국민소득의 분배에 그 촉점이 두어지며 貿易의 量이나 方向과는 큰 關聯을 갖지 못한다. (Csikos-Nagy, 1971:102) 따라서 이때 적용되는 가격은 각국간 경제계획을 調整하려는 취지를 가지며 정부당국의 경제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상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론은 하나의 지침을 제공할 뿐 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더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경제계획이 추구하는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게된다.

2. 貿易理論의 發展

A. 스미스의 分業理論과 D.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등장한 이래 市場經濟에 있어서는 貿易理論은 일반 經濟理論中에 가장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와 함께 科學的으로 정밀화 및 체계화 되어온 分野中の 하나이다. 貿易理論의 對象은 국가간 무역발생의 原因, 이에 따르는 이익 및 國際分業의 展開 등에 두어지며 근본적으로 시장기능에 기초한 自由貿易體制를 最善의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K. 마르크스나 F. 엥겔스 등 初期 사회주의자들은 國際貿易의 중요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단지 개괄적으로 국제무역의 原因, 資本主義의 生產樣式의 발전과정에서 세계시장과 무역의 역할, 利潤率에 대한 外國貿易의 영향 그리고 자본주의下에서 國際價值 및 對外貿易政策의 성격 등을 言及하였을 정도이다.⁽⁴⁾ 이미 지적하였듯이 마르크스는 국가간의 對等한 價值의 교환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을 다분히 부정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條件에 있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련이 마르크스-레닌의 理論을 따라 計劃經濟體制를 擇하였고 그후 탄생한 사회주의제국이例外없이 이러한 「모델」을 따랐다는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도 市場經濟에 있어서도 市場經濟에 의한 貿易理論을 受容하는 데 심각한 制約을 가져왔다.

우선 西方式의 貿易理論은 市場에서 需給에 의하여 자유로이 형성되는 가

(4) 이와 관련된 논문집은 *K. Marx and F. Engels on Colonialism,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s, Moscow* 참조바람.

격이 경제적 비용을反映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제국내에서 가격은商品市場이나要素市場에 있어서 다같이 가격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마르크스 경제에 있어서稀小性이라는 개념은 도외시되며 따라서市場價格과 큰關聯을 갖지 않는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는對外貿易이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事前에 계획된다. 따라서市場經濟에 있어서와 같이 비교우위를 기초로 기업들에 의하여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세째,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媒介變數의 하나인換率은國內外市場價格의比를 반영하지 못한다. 즉 모든社會主義諸國은 엄격한外換統制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며國內外價格構造로 부터 크게 괴리되어 있다.

끌으로 소련을 그 대표적인例로 들 수 있거니와 대부분「균형경제발전(balanced economic development)」戰略을 택함으로써對外貿易에 있어서 기초가되는費用概念을 무시하고 있어 국제무역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소위一國社會主義建設을 위한 이러한戰略은, 중요核心的인重工業部門에 우선을 두게 하고 농업이나經工業部門의 정체를 가져오므로써 오히려逆說的으로不均衡成長論과 그 맥을 같이하게 된다.

사실一部社會主義學者들은計劃經濟體制에 의한 무역정책이 정착되기 이전에비교우위理論에 입각하여國際貿易의必要性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A.P. Lerner는 수송비, 完全特化, 관세 및 非關稅障壁 등을 고려하지 않을 때, 外國貿易은國內 및 國際相對價格이 균등할 때 까지 일어난다고 함으로써(Lerner, 1944:346) 실질적으로는自由貿易論의視角에서 논리를 펴고 있다. O. Lange 역시社會主義體制에 있어서 생산이나資源配分은中央當局에 의하여 결정된選好의 내용에 따라誘導되나價格機能은 생산된소비재의配分을 위한目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ange and Taylor, 1938:96) 이러한體制는 소비自體에 대한선택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생산과 생산자원의 운영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流의市場社會主義의論理는一部유고와 같은경우에는 도입되었으나 소련을비롯한大部分東歐圈이中央集權의計劃經濟를定着시켜 나감에 따라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적용될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스탈린이死亡한 1950년대初까지만 하여도社會主義諸國은西方에서발

전하여 온 비교우위理論이 後進國에 대한 경제적支配를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고 나아가 外國貿易을 否定視하였다. 많은 學者들이 이理論이 사회주의圈에 대한 西方의 차별적 무역정책을合理화시키기 위한 부르자 經濟學者들의 理論的道具라고까지 혹평하였다. (Wilczynski, 1969:71)

그리나 1950년대初 以後 東西間 政治的 共存의 時代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外國貿易에 대한 태도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外延的成長要因이 점차 소멸하고 또 自給體制의 追求가 한계에 이름으로써 隘路部門이 더 이상의 成長을 制約하는 단계와도一致한다. 더구나 소련이나 中國의 경우와는 달리 國內 賦存資源이 부족하고 小規模의 市場을 갖고 있는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外國貿易의 擴大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CMEA域內 社會主義的 經濟統合의 深化를 위한 代案이 급속히 추진되었으며 對 西方 經濟·貿易去來도 擴大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理論이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이며 최근까지 그 關心方向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⁵⁾

첫째, 外國貿易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計劃經濟라는前提아래서도 經濟發展을 促進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國內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輸入을 통하여 더 적은 資源을支出할 수 있다는 外國貿易의 긍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表現을 빌린다면 사회적 노동의 경제적 사용과 같은 자원의 절약은 결국 높은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投資計劃이 投入과 產出面에서 국내시장에만 依存할 수 없는 단계가 심화됨에 따라 보다 貿易을 통하여 最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많은 東歐學者들間 外國貿易의 效率性(foreign-trade efficiency)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설사 計劃經濟와 그리고 集團所有, 歪曲된 價格構造 및 非現實的인 換率政策을 가정하더라도 輸出 및 輸入의 效率性, 또는 投資의 外國貿易效率性 등을 나타내는 각종 指數 및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 통화로 表示된 國내비용이 外換의 收入 또는 支出과의 對比를 통하여 效率性이 算出되고 있다.

(5) 同上, p.65 以下 : F.D. Holzman, *International Trade Under Communism—Politics and Economics*, Basic Books, New York, 1976, p.51 以下 ; Z.M. Fallenbuchi & C.H. Mcmillan, Pergamon Press, 1980, p.5 以下 등 참조.

세째, 社會主義 學者들 역시 西方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經濟·貿易去來의 발전에 關心을 갖고 있다. 즉 後進經濟의 原因이 歷史的으로 兩者間의 政治·經濟關係에 크게 기인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하면 또 開途國의 經濟開發의 촉진을 위하여는 去來 패턴의 改善 내지는 改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政策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西方과 사회주의제국간 貿易理論의 對象이 중복되는側面을 내포하는 것 같아도 생각되나 根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西方의 경우 貿易의 이익이나 國제무역의 조정「메카니즘」에 주로 편중되고 있다. 반면 社會主義體制에 있어서 貿易理論의 취지는 國제거래의 사회·경제적 기초 및 結果, 그리고 통제된 경제개발이라는 조건을前提로 外國貿易의 역할 및 운영에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위기가 深化되고 또 經濟改革이 進行됨에 따라 對外去來의 增大를 통하여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 역시 對外貿易을 단순히 經濟計劃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間接的으로 利益의 實現에 의하여 經濟目標를 달성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經濟計劃의 수행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對外貿易政策의 수단인 가격, 外換,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의 실시에 있어서도 市場機構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⁶⁾ 이와 관련하여 다음 章에서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II. 經濟改革과 對外經濟政策

1. 經濟發展의 停滯와 原因

1930年代 이미 소련에서 確立한 발전모델의 趣旨는 제한된 몇 개의 選擇된 產業내로 資源을 集中的으로 投入함으로써 단기일내에 国내의 生產基盤

(6) 대표적인 문헌을 소개한다면 J. Quigley, *The Soviet Foreign Trade Monopoly*, Ohio State University, 1974; H.H. Höhmann, M. Kaser & K.C. Thalheim ed., *The New Economic Systems of Eastern Europ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M. Bornstein, ed., *Economic Planning, East and West*, Ballinger Publishing Co., 1975 및 F.D. Holzman, *International Trade under Communism*, Basic Books, 1976 등 참조. 최근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에서 주최한 국제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Economic Systems and Reforms in a Changing World*,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1987, 12., 9권 2호.

을 구축하고 構造轉換을 達成하는 데 있었다. 2차세계대전이후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는 역시 이러한 모델에 따라 中央集權의 命令體制下에서 經濟를 運營했는데 意思決定權限의 集中으로 初期에는 의욕적인 工業化의 推進이 가능하였다.

이와같이 1960年代 初까지는 比較的 높은 成長率을 나타냈으나, 經濟成長이 生產要素의 外延的 成長에 주로 依存하였기 때문에, 生活水準 向上의 抑壓, 勞動力 및 生產手段의 浪費의 使用이라는 費用이 隨伴되었다. 즉, 이發展戰略은 生產要素의 급격한 增加가 가능하고, 優先順位가 낮은 부문들이 경제성장의 惠澤으로부터 疎外될 수 있는 상황하에서만 소기의 目的들이 達成될 수 있었다.

따라서 資源增加가 정체되고, 점점 消費水準 向上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年代 初에 이르러 이러한 成長戰略은 成長의 質과 經濟發展의 潛在力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Selucky, 1972:8) 사실 外延的 成長戰略이 이런 限界를 보인 것은 그 자체의 浪費的 性格과 함께 中央集權的 命令體制에 內在한 非效率的 屬性 및 社會主義에 一般的인 理念의 영향 때문이었다.

市場經濟에 선 市場에 의해 事後的으로 행해지는 광범위한 調整作業을 命令的 中央計劃經濟는 計劃을 通해 事前的으로 達成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당국은 計劃作成을 위해 막대한 양의 情報가 必要하며, 특히 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情報가 重要하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이 評價받는 基準이 中央으로부터 부여받은 課業의 違行정도에 의존하므로, 가능한 한 적은 양의 生產目標를 割當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Kuczynski, 1979:510) 이때 기업은 자신의 生產能力에 대해 정확한 情報를 중앙당국에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에따라 報報의 質은 떨어지게 된다.

이때 중앙당국도 企業의 이런 傾向을 알기 때문에 生產目標量을 決定함에 있어 該當企業의 前年度 實績에 一定 퍼센트를 더하는 方式을 採擇하게 된다.⁽⁷⁾ 이는 다시 기업으로 하여금 投入의 侧面에서 가능한 한 安定된 水準의 所要資源을 確保하게 함으로써 生產目標를 達成하게 하는 非能率을 가져온다.

(7) 이것이 소위 말하는 '톱니효과'로 Soviet-type 기회과정의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P.R. Gregory and R.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Harper & Row, 1986, p.219.

우선 기업은 資本이 부족하고 또 그 配當規模도 不確實한 상황 속에서 勞動의 確保로 이를 代替하려고 하는 傾向을 갖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다음 몇 가지 이유로 勞動은 慢性的不足現象을 惹起했고 또 效率性을 低下시키게 되었다. 먼저 이러한 傾向에 따라 顧用費用은 기업의 주관심사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命令體制에선 기업의 成功이 效率性에 의해서가 아니라 總產出量에 의해 評價받고 또 目標量을 달성하는 方法이 勞動生產性增加를 通해서 보다는 顧用擴大쪽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그밖에는 工業化는 熟練勞動을 要求하는데, 이에 대한 供給이 따르지 못하자 기업들은 未熟練 労動의 顧用을 늘리는 방법으로 對應하였다. 사실 生산면에서 가장 빠른 成長을 보여주었던 工業부문은 거의 全部가 勞動力의 증가에 의하여 혜택을 받았는데, 絶對的 숫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經濟의 다른 分野에 비해 相對的으로도 顧用이 증가했다.

한편 勞動만이 價値創出의 根源으로 생각하는 理念의 영향때문에 勞動費用만이 考慮되었고, 資本使用에 대한 費用은 거의 無視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資本需要도 非正常的으로 크게 유지되어 언제나 超過需要 狀態를 떠났다. 工業化를 위해서는 投資增加가 必須의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財源은 消費增加를 抑制함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실제로 1950年代 이후 投資增加率이 國民所得增加率을 앞질렀다. (Wilczynski, 1972:30)

나아가 目標量만 達成하기 위해 商品의 質이 無視되고, 따라서 팔리지 못하는 商品의 生產이 增加했는데 이는 새로운 浪費의 형태로 社會主義에 있어서 生產者市場이 支配의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企業間 競爭자체도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費用節減, 技術革新에 대한 誘因이 매우 적었다.

이와같이 中央集權的 命令體制에서 遂行된 外延的 成長戰略은 매우 非效率的이었고, 이에따라 1960年代에 접어들어 諸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成長은 停滯되기 시작하였다.

東歐 6個國(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동독, 루마니아 및 체코)의 例를 든다면 平均成長率⁽⁸⁾은 1976년 6.2%까지 기록하였으나 79년 3.3%로 하락했으며 그 후 계속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 85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루마니아의 5.9%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2~3%에 위치하며 헝가리에 있어서는 -1%까지 후퇴하였다.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1986)

(8) 순물질 生産기준

이러한 經濟的 危機는 총체적으로 세가지 側面에서 接近될 수 있다.⁽⁹⁾

우선 무엇보다도 構造的 制約을 들 수 있는데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운영에 따르는 非效率性이 가장 근본적인 要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經濟改革의 중요 취지는 計劃經濟內에 市場의 役割을 도입함으로써 신축성과 경쟁을 제고시키자는 데 있다.

다음 狀況的인 條件으로서 특히 70년대 資源波動 및 先進資本主義諸國內 경기침체에 연장에 더하여 사회주의제국이 經濟政策面에서 적절하게 조정정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以外에도 1980년대初 폴란드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사회적 소요나 不安이 경제활동을 저해하였다. 또 政治優先의 經濟政策이나 비능율적인 관료체제 역시 經濟的 效率性을 저하시키는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2. 經濟改革의 內容과 意義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中央集權的 命令經濟에서 遂行된 外延的 成長戰略은 1950年代末부터 심각한 非效率의 문제를 가져왔다. 따라서 1960年代初에 접어들면 內包的 工業화의 必要性이 認識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改革이 1963年 東獨의 經濟改革을 起點으로 全東歐圈에擴散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核心的인 變化는 意思決定權의 分權化 및 市場機構의 이용이었다. (Brus, 1979:258) 먼저 命令的인 中央計劃이 廢止되고, 기업에 더 큰 自律性과 伸縮性이 부여되었다. 즉 下位水準에서의 責任感과 創意性을增進시키려는 의도로 中央當局은 巨視經濟變數와 全般的調整作業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計劃은 年間計劃보다는 中期 또는 長期計劃에 重點을 두게 되었으며, 經濟는 強制的 命令보다는 經濟的 지렛대 (economic lever)⁽¹⁰⁾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個別기업의 自律性은增加되었는데 결국 分權화의 노력에 따라 그간 制約되었던 競爭의 強化가試圖되었다.

(9) 예로 M. Drach, *La Crise dans le Pays de l'Est*, Paris, Editions la Découverte, 1984, pp.113-121 참조.

(10) economic regulator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信用條件과 價格統制, 租稅 및 補助金 정책, 賃金統制 등을 말한다.

한편 이런 分權化된 決定이 合理的일 수 있기 위해서는 價格의 情報機能이 強化되어야 했다. 즉 價格에 費用 및 選好가 反映되도록 하기 위한 生產者價格의 改定과 價格이 變化된 經濟的 現實에 彈力的으로 適應하게 하기 위해 價格決定方法과 關連하여 改革이 推進되었다.

또 기업의 주요한 成果指標로서 利潤制度가 도입되었는데, 그趣旨가 費用의 最小化, 生產價值의 增大, 質的 向上의 圖謀에 두어짐으로써 기업에게 더 나은 技術을 採擇하도록 誘導하였다.

個人에 대한 物的 誘因으로서 責任量에 대한 認識을 確固하게 하기 위해 標準賃金에 있어서 成果別 差等이 擴大되었고, 또 技術習得의 強調와 함께 보너스가 企業利潤에 基礎하여 支給되었다.

이와 併行하여, 投資面에 선 分權화의 擴大에 따라 政府豫算에 의한 無償配分이 縮小되고 内部資金에 의한 自體調達과 銀行信用 利用이 增大되었다.

또 所有面에 선 私的 分野가 여전히 比重이 작은 상태이기는 하나 小賣業, 洗濯, 食堂, 호텔, 旅客 및 特殊貨物輸送 등 서비스 부문에서 私的 기업이 여러가지 제한으로부터 풀리게 되었다. 이런 民間부문은 각국에서 擴張하는 추세에 있으며, 높은 生產性때문에 國民所得 寄與面에서 점차 중요해졌다. (Wilczynski, 1972:52)

對外關係에 있어선 國際分業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기 위해 國內外 市場의 連結이 試圖되었다. 이에따라 外國貿易計劃이 멀強制的인 性格을 띠게되고, 去來主體에 더 큰 自律權이 付與되었다. 外國貿易省(Ministry of Foreign Trade)에서 관리되던 貿易의 獨占化가 약화됨에 따라 기업이 外國市場에서 直接的으로 去來할 수 있는 權限이 部分的으로 주어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輸入制限政策보다 關稅가 貿易政策의 주요한 도구로써 사용되기도 했다. 物的 誘因體制 및 外國貿易기업과 國내생산기업사이의 協定내용에 있어서도 좀더 效率的 輸出入 構造를 誘導하는 방향으로 調整되었다.

한편 이런 改革의 根本的 意義는 中央計劃을 補完하기 위한 도구로써 市場機構가 이용된다는 데 있다. 傳統的인 見解는 計劃과 市場이 相互 敵對的 이거나 또는 排除的인 것으로 보아왔으나, 經濟發展은 높은 段階에 이르러서는 이 두가지의 基本的인 要素의 상호 有機的 結合이 可能할 뿐만 아니라, 內包的 成長을 위해서는 必須의이라고 認識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당시 까지 任意的으로 운영되어온 企劃過程(planning process)이 市場에 나타난

價格信號에 보다 基礎하게 되었고, 計劃의 移行에도 市場機構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¹¹⁾ 이와같이 市場의 役割이 強調됨에 따라 生產構造 역시 價格이나 需要 및 供給과 같은 기업 또는 소비자의 選好를 통하여 調整되어야만 하는 段階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1960年代 改革의 推進은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큰 進前을 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國際油價波動의 영향과 서방의 景氣沈滯로 인해 동구권 국가의 商品에 대한 輸入需要가 격감됨에 따라 經濟全般에 걸쳐 成長이 鈍化됨으로써 調整作業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동구권 諸國은 새로운 成長의 出口를 찾아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대안으로서 서방 기술도입에 의한 開發戰略을 選擇하였다. 기술의 도입이 資本스톡(capital stock)의 質的 增大와 生產性 向上을 가져옴으로써 經濟成長의 鈍化를 만회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產業研究院, 1983. 12:120)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戰略은 다음 두 가지 制約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改革이 제대로 推進되지 못하여, 經濟全般에 市場誘因이 부족하고, 人力이 訓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방기술의 導入은 충분한 生產性 上昇의 效果를 발휘할 수 없었다. 실제로 計劃立案者들은 기술도입의 生產性과 관련된 經濟的・政治的 그리고 社會的 여건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기술도입은 그에 수반되는 直接的인 費用一기계, 라이센스, 노우하우에 대한 費用一에 그치지 않고, 서방의 原資材와 中間材도 동시에 交換性 通貨로 도입될 때에 비로소 活用될 수 있었다. 輸出能力이 缺如된 상태에서 이런 시도는 결국 70年代 後半부터 80年代 初까지 심각한 國際收支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國際金利의 上昇은 서방에서 대두된 새로운 保護貿易主義와 함께 이런 상황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와같이 成長이 鈍化되고 對서방 依存度가 深化되자 여기에서 脫皮하기 위해 80年代 初에 접어들며 縮小均衡的 經濟調整政策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 社會主義 諸國이 1960年이래 처음으로 1983年에 이르리 對서방 무역에서 黑字를 記錄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이었으며 成長

(11) 1956年の 제20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市場機構가 價值法則과, 商品生產이 市場生產과 동일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社會主義내에선 이런 범주들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R. Selucky, 1972:34)

을 위해선 擴張的 政策이 불가피함으로 다시금 惡循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바로 國際分業에 積極的으로 參與함으로써 輸出能力을 伸張시키려는 對外戰略의 採擇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1970年代 중반 중단되었던 經濟體制의 改革으로 다시 復歸하는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즉 貿易이 彈力的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分權化의 확대 및 誘因制度의 改善이 전제되어야 하고, 세계경제에서 東歐의 比較優位가 反映될 수 있는 生產形태로 產業構造를 改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따라 過度한 에너지 消費, 輸入 原資材의 過度한 投入 등 非能率的 要因도 제거되어져야 했으며, 輸出潛在力이 높은 產業의 育成에 力點이 두어져야만 했다.

한 예로 최근 소련에서 追求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改革)와 글라스노스트(開放)도 바로 이러한 必要性을反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정책추구는 指導層으로부터는 政治的・理念의 이유로 抵抗받고 있고, 또 生產大衆으로부터도 職業의 不安定性이나 所得分配격차의 확대의 危險性으로 인하여抵抗을 받고 있어 그 展望이 불투명하다.

3. 對外經濟政策의 變化

1960年代 初까지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은 社會主義 理念에 기초해서 理想的인 自給自足體制의 基調를 유지해왔다.

원칙적으로 輸入은 엄격히 統制 또는 制限되었으며, 輸出은 事前에 決定된 輸入水準에 대한 支拂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즉, 貿易은 국가 전체 計劃속에서 추구하는 目標의 遂行과정에서 財貨의 需給均衡이 保障되지 않을 때 이를 調整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外延的 成長戰略하에선 物資不足現狀이 一般的이었으므로 物資均衡表에 의해 輸入量이 먼저 決定되고, 그 決濟手段으로서 輸出이 계획되었다.

이와같이 貿易이 單純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輸出入 자체가 계획수립과 경제를 統制하는 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開放經濟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해 무역이 수행되며, 또 경제적 이득이 極大化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生產技術의 結合方法이나 財貨調達method의 선택도 자유롭다. 그런데 社會主義 諸國은 中央集權의 계획의樹立과 執行에 충실히 하는 한편 이들과의 貿易에 있어서 技術的 難點들이 증대하는 부담을 동시에 갖게되므로 中央統制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게되는兩立

性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金昊均, 1981:23)

이에 추가하여 國際市場의 變動에 의해 國內市場의 安定性이 沮害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對外貿易은 資本主義가 剩餘商品을 쳐분하기 위한 帝國主義的手段에 불과하다는 理念的 영향도 貿易을 萎縮시킨 요인들이다.

다른 한편 一次商品을 輸出하고 工業製品을 輸入함에 따라 交易條件이 악화되고 外貨獲得에 있어서 제한된 능력때문에 國際收支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後者는 輸出產業의 低開發, 生產者 市場의 支配的인 위치에 따라 발생한 潛在的 輸入需要의 확장, 또는 資本主義市場에서의 差別待遇 등으로 인하여 慢性的인 國際收支의 壓力を 받게되었다. (Wilczynski, 1972:261)

따라서 資本과 勞動力 부족이 外國貿易으로도 충분히 대처되지 못하여 經濟成長의 障碍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인 國際分業의 참여에 대한 菲요를 認識하게 되었고, 1960年代 初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가에서 自給自足에 대한 教條的 支持가 公式的으로 철폐되었다.

國際分業의 必要性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内部經濟關係의 改革은 外國貿易과 관련하여 우선 計劃, 組織 및 管理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外國貿易計劃은 단순히 處方의이고 細部에 대한 統制의 성격을 脫皮하여 物的 基準(physical term)대신 좀더 신축적인 價值基準(value term)으로 바뀌었으며, 또 國제무역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만이 計劃의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다. 改革전엔 외국무역이 外國貿易省을 통해 엄격히 規制되었고, 구체적인 정책은 輸出入에 獨占力を 갖는 대규모조직인 外國貿易組合(foreign trade association)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改革과 함께 外國貿易省의 役割은 貿易構造와 規模의 全般的 調整으로 제한되었고, 外國貿易組合들 역시 세부적이고 보다 특정한 부문만을 취급하도록 任務가 分擔되었다.

한편 貿易遂行과정에서 效率性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貿易去來에 따른 決濟方式의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2차대전이래 社會主義 國家의 貿易은 雙務主義 정책에 기초하였으며, 그趣旨는 각 對相國別로 年間均衡을 유지하는 데 두어졌다. 이런 식의 貿易協定에 의하면 쌍방의 貿易總量뿐만 아니라 去來商品의 構成, 等級 및 支拂方法 등이 事前에 合意되었다. 이러한 방식이 각 무역상대국과의 交易量을 均衡시키고 輸出入商品의 構成比를 미리 알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經濟計劃을 용이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또 이와 함께 부족한 外換에 의한 決濟의 필요를 최소화시켜 주어 國際收支문제도 완화시

켜줄 수 있었으므로(金昊均, 1981:8-9) 이런 雙務主義는 개혁이전에는 그 나름대로 論理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50年代末부터 成長率 鈍化를 招來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雙務主義에 따른 經濟的 非效率性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한 예로 外換支拂 능력이 작은 相對國에 대해선 輸出이 제한되고 그 댓가로 원하지 않는 商品도 지불받게 됨에 따라 國際貿易으로부터의 이득이 축소되는 不利益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 對外競爭으로부터 自國產業을 保護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競爭力 약화를 가져오고, 貿易擔當者들이 國內外 價格差異에 둔감해짐에 따라 貿易의 方向과 構成을 歪曲시킨다는 단점도 追加되었다.

이에 1960年代初 內包的 工業化 追求라는 政策基調의 轉換과 더불어 貿易의 多邊化와 通貨의 交換性 實現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海外經濟研究所, 1980:25) 이 多邊主義(multilateralism)의 本質은 輸出이 더 이상 상대국의 輸入能力에 따라 제한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價格을 받는 곳에 팔고, 원하는 곳으로부터 輸入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른바 市場原理에 기초한 貿易이 새로운 經濟成長의 源泉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立脚하였다.

다른 한편 多邊主義의 가장 기초가 되는前提로서 合理的 價格體系의 도입이 요청되었는데, 그 이유는 費用-選好를 반영하는 市場價格만이 比較優位原則에 따라 貿易利得을 極大化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57年이래 코메콘 국가들도 資本主義 世界市場價格을 相互貿易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내부적으로도 生產者 價格과 小賣價格과의 연계가 圖謀되었다.(Wilczynski, 1972:270) 이와같이 外國貿易에 요구되는 많은 價格들이 伸縮的으로 운영됨에 따라 生產 및 輸出入에 어느 정도 經常市場條件이反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價格構造를合理화시키려는 노력은 社會主義 通貨의 換率이 國際交易材로 본 購買力を 반영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한 多邊主義의 趣旨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사실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內의 公式的 統計에 이용되는 公定換率(official basic rates)은 過評價된 상태로 市場均衡에서 크게 遊離되었기 때문에 貿易의 方向을 決定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실제 去來에 있어서는 주요 商品群이나 貿易對象地域別로 公定換率을 係數에 의해 조정한 潛在換率(implicit exchange

rates)이 채택되었다. (金昊均, 1981:40) 同係數의 作成에 있어서는 다른 시장의 가격, 다른 通貨의 交換性의 정도 및 支拂條件 등이 考慮되었다.

그 이외에도 利潤이 기업의 주요한 成果指標로 등장함에 따라 가장 싼 곳에서 輸入하고, 가장 비싼 곳에 판매하는 誘因이 付與되었고, 輸出기업은 그들이 獲得한 外換의 일부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權限을 갖게됨으로써 輸出誘因이 강화되었다.

다음 對外 貿易關係를 살펴보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우선 外國貿易擴大의 必要性이 強調되기 시작하자 既存 코메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1957年부터 政府間의 協定에 기초한 域內 特化에 대한 합의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國別 比較優位產業이 확정되었다. 商品間(inter-product)特化는 대부분 原料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製造業부문에서의 코메콘內 協力은 規模, 모델, 加工段階 및 構成部分 등의 차이에 기초해서 대부분 商品內(intra-product)特化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와같이 社會主義諸國內 特化와 貿易이 인위적이기는 하나 水平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資本主義 國家間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水直的 分業 및 交換에 의한 摦取가 없다는 長點이 자주 강조되고 있다. (Wilczynski, 1972:263)

나아가 서방파의 貿易도 확장되어 왔는데 그 중요한 요인으로서 改革이 效果的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西歐의 技術習得을 내용으로 하는 輸入轉換的 成長政策이 실시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東西去來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79年末 아프카니스탄 事態 이후 東西關係의 惡化와 세계적인 景氣沈滯의 영향으로 그 伸長率이 급속히 鈍化되었으며, 1981年부터는 특히 東歐의 外債難을 계기로 그 規模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產業研究院, 1984. 6:71)

그 이후 東歐圈 國家들은 對外政策의 결합을 반성함으로써 外債에 의존하기 보다는 輸出擴大를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獲得한 外貨로 필요한 輸入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轉換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社會主義式 輸出主導戰略의始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1980年代 중반이후 東歐圈 國家들은 輸出에 적극적인 의미를 付與함으로써 이를 成長의 源泉으로 看做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貿易去來方式에 있어서는 輸入을 輸出에 연계시키는 求常貿易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 비중도 1980年代 중반에 이르러 50% 정도로 提高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東歐가 안고 있는 對西邦外債 및 外債利子때문에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交換性通貨의 複雜을 追求해야 할立場에 처해있다는 이유이외에도 높게 책정된 對서방 輸出額에 비해 輸出競爭力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產業研究院, 1984. 12:71)

이에 더하여 商品貿易이외에도 東歐圈國家들은 合作生產이나 合作投資 등을 통하여 先進技術의 導入 및 서방 市場進出을 시도하고 있으며, 서방측도 역시 이러한 產業協力이 東歐의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여 주기때문에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고있다. 또 서방측이 정치적 이유로 접근하기 힘든 제3세계에 東西兩陣營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와 東歐諸國이 서방기업에 出資하는 형식의 協力事業도 이용되었다. (產業研究院, 1984. 10:41) 그러나 總體的으로 이러한 產業協力은 여러가지 制約으로 실제로는 아직까지 東西去來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III. 重要諸國內 對外經濟政策의 發展

1. 유 고

유고는 初期부터 여타 東歐圈 諸國과는 다른 經濟體制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社會主義의 理念 및 原理에 대한 解釋이 正統派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國家에 의한 勞動者 摧取의 가능성을 認定하고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排除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勞動者가 실질적으로 經濟를 運營하는 社會主義의 건설을 피하였다. ⁽¹²⁾

그 결과 나타난 것이 勞動者 自主管理(worker's self-management)라는 독특한 제도였으며, 이후 계속된 유고의 經濟改革過程은 이 제도를 완결된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

유고에서는 勞動者 自主管理制度를 통해 分權化가 導入되기 시작한 1950年代에 이미 計劃의 手段으로서 市場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伸縮的인 운영이 실질적인 意味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61年 기업에 처음으로 소득처분권이 주어졌고(Granick, 1975:341),

(12) Horvat는 이것을 étatism이라고 부르는데, 잉여가치가 국가위계조직내의 위치에 따라 比例하여 분배되는 새로운 支配 및 摧取 계급을 형성시킨다고 하고 있다. B. Horvat, "Yugoslavia Economic Policy in the Post-War Perio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1, 1971, p.77.

1965年 改革으로 價格統制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商業銀行체제의 成立으로 投資면에서의 國家介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은 對外貿易部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1952년까지 外國貿易은 엄격한 外換統制하에 수행되었는데, 均衡基金(equalization fund)에 의한 각종 補助 및 複數換率제도를 통해 國內外 價格差異를 相殺시켰다. 이것은 國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生產性 比較를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效率性의 低下를 가져왔다. 1952年이후 均衡基金이 폐지되고 收益性이 成功指標로 公式的으로 導入되었으나 여전히 國內外 價格差異를 제거하기 위한 輸出入 係數가 設定되는등 歪曲이 존재하였다. (Adamovic, 1982:152)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61年인데 이때 처음으로 複數換率제도가 폐지하고 單一固定換率이 성립되었다. 또 農產品과 木材에 대한 보호가 撤廢되었고, 消費材 및 工產品이 최초로 關稅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Horvat, 1971:126), 貿易에 無差別 原則(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때 設定된 單一換率은 交換性 通貨에 대해 過評價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방으로 부터의 輸入이 증가된 반면 輸出은 서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코메콘 諸國에 집중되었다. 이는 交換性 通貨에 대해 收支압박을 가져와 經濟成長의 제약이 되었다. 또 이때까지 國內價格에 대한 統制 및 輸出入補助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國際分業에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었다. 따라서 價格構造의 合理化 및 競爭力 提高라는 측면에서 效率性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改革이 요구되었다.

이에따라 1965年 改革의 後續作業으로 1967年 1月 貿易管理制度가 대폭 자유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輸出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수행되며, 國내시장에 심한 부족이나 國民保健, 國家防衛上 필요가 있을 때 또는 外國貿易이 地域의 不均衡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한하여 허가가 요구되었다. (Adamovic, 1982:157) 한편 輸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① LB(liberalized imports)방식

事前에 許可를 요하지 않으며, 기업이 輸入代金을 직접 支拂하거나, 外換取扱銀行을 통해 디나르(dinar)貨로 決濟할 수 있다.

② LOB(conditionally liberalized imports)방식

協定체결 당사국으로 부터의 輸入에 優先權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③ GDK(global foreign exchange quota)방식

連邦外國貿易省이 총소요 외환을割當하고 連邦經濟會議所가 각 輸入業體間의 配分을 맡도록 하여, 이 配分額에 의해 輸入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④ DK(foreign exchange quota)방식

특정하게 정해진 外換 配定額의 限度에서 輸入을 가능케하는 방식이다.

⑤ RK(commodity quota)방식

特定商品에 대해 輸入量의 限度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⑥ D(import permits)방식

連邦外國貿易省으로부터 事前 輸入許可를 받으며, 自國商品을 輸出한 輸入業者에 한해서 발급된다.

同制度가 실시된 이후 LB 및 LOB방식에 의한 輸入이 1968年 總輸入額을 기준으로 한다면 56%를 차지했고, D방식에 의한 경우는 2.5%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輸入면에서 상당한 自由化가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南炫旭, 1984:10)

貿易管理制度의 自由화와 併行하여 外換管理制度도 역시 신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輸出을 통해 外換을 획득한 업체는 外換取扱銀行에 預金하거나 賣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LB 또는 LOB방식으로 輸入을 할 때는 외화를 은행으로부터 引出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체는 輸出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工產品의 輸入을 위해서는 디나르貨를 外換取扱銀行에 支拂하여 외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換率은 국내가격을 국제가격에 接近시키기 위한 趣旨에 따라 몇차례 디나르貨의 評價切下를 통하여 실제가치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 후 1973年 固定換率制度가 폐지되고, 管理變動換率制가 실시됨으로써 換率은 國內外 價格의 연결이 계속 유지되도록 변동되어 왔다.(World Bank, 1983:85) 또 유고는 輸入을 規制하던 關稅에 의한 보호를 낮추고, 輸出에 지급하던 補助金 및 直·間接的 價格補助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社會主義 國家와는 달리 점차 世界市場과의 統合을 실질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다음 유고의 對外經濟協力政策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社會主義 國家에 비해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7年 社會主義 國家로서는 최초로 外資導入法을 制定하여 外國資本 및 技術誘置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우선 유고는 生產의 基本要素라는 視角에서 새로운 產業技術의 開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에서 特許權을 導入하고 있는데, 한 예로 국내기업이 충분한 買入代金을 所持하면 國立銀行의 介入없이도 자유롭게 使用料를 支拂할 수 있다. 合作生產과 관련하여 特定 最終財生産을 위해 協定當事國들과 각기 부품을 제조하고, 이를 교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고기업들은 이 협정을 통해 產業技術을 習得할 수 있고, 또 유고產部分品을 輸出하여 外貨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잇점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방측 기업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것보다 低廉한 價格으로 부분品을 供給받을 수 있고, 나아가 유고내에 市場을 確保할 수 있다는 잇점에着眼하고 있다. 外國合作投資는 제조업체에 한하여 許用되며, 新技術導入에 優先이 두어지고 있다.

結論的으로 유고는 對外經濟關係에서 잇달은 經濟改革을 통하여 서방의政策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따라서 여타의 社會主義國家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市場을 이용한 資源配分의 效率性追求가 그 背景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고經濟는 地域間 葛藤에 더하여 70年代 기간중 分權化가 지나치게 擴大됨에 따라 對外經濟의 영향등 不安定要素를 내부에서 충분히 적응시키지 못하고, 調和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높은 物價上昇率 및 失業率에 따르는 심각한 經濟的不安定을 겪고 있다.⁽¹³⁾ 즉 市場機構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展開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體制와의 摩擦에 따르는 不安定性이 政治的・理念的으로 偏向되어 형성된 歪曲된 經濟構造때문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¹⁴⁾ 이러한 葛藤을 제거하기 위해선 經濟的要因이 優先적으로 考慮되는 보다 現實的인 經濟體制의 형성 및 政策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헝가리

헝가리는 賦存資源이 빈약하며, 국내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對外貿易에

(13) 1977年에서 1981년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은 24%, 실업률은 13.5%에 달하고 있다.

(14) 1974年 이후 自主管理協定과 社會協約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기회체제가 도입되었으나, 그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주요 목적은 당시 최종적인 조정자가 됨으로써 당시 우월성을 확보하고, 自主管理制度의 확대시기에 의해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중에서 輸出入이 차지하는 構成比는 최근 70~80%에 달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헝가리는 소련형 經濟發展類型을 따랐으나, 自給自足指向의 인體制가 經濟 및 地理的 與件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1950年代 중반부터 政策的 轉換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趣旨는 均衡發展으로의 復歸에 있었는데 資源賦存 條件에 附合되는 產業構造의 開發을 비롯하여 構造的變化가 큰 成功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후 급속한 工業化 過程의 追進은 市場性이 無視되고 價格體系가 왜곡된 상태에서 外延의 性格을 띠었으므로 效率性이 缺如되었다. 특히 資源의 浪費가 심하였으며, 繼續적인 成長意慾은 輸入增加의 압력을 加重시켰으나 輸出能力의 制約으로 인하여 이런 要求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와같이 1950年代 慢性的인 國際收支 압력을 成長의 障碍로 나타났고 (Brown and Marer, 1973:162), 중앙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原資材와 機械類의 輸入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國內裝備의 사용과 原資材의 부족은 成長의 제약을 더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기 위하여 國際分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輸出能力을 확대하고 合理的인 貿易去來를 수행함으로써 對外去來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요구가 대두하였다. 전통적인 中央集權經濟體制에서 生산자들이 國際市場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1968年 헝가리經濟의 全般的인 改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새로 등장한 新經濟機構(New Economic Mechanism)의 기본적인 변화는 意思決定에 있어서의 分權화와 市場機構의 도입이었으며, 판매자나 구매자 뿐만 아니라 生산자도 직접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同 新經濟機構의 영향은 對外貿易부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改革이후 輸出入 면에서 分權화가 확대되었는데, 기업이 對外貿易의 細部計劃을 작성하게 되었고 외국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改革으로도 輸出入 許可制度는 폐지되지 않았다. 외국무역활동은 外國貿易省에 의해 여전히 計劃・統制되었는데 同省에 의하여 상업기업과 生産기업에 대해 輸出入 許可狀이 발부되었다. 輸入許可를 받을 수 있는 權限은 헝가리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업 또는 이러한 目的을 위해 組合

을 형성한 기업들에 한정되었다.⁽¹⁵⁾ 輸入許可是 個別許可와 一般許可로 구분되며 그 대부분은 後者の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부여되었다. 前者は 去來件別로 契約이 체결되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後자는 許可에 명시된 商品이나 用役의 輸入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一括的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다. 일단 輸入許可를 받으면 頃가리 國立銀行으로부터 필요한 量의 外換을 買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政府는 農산물과 같은 天然資源 중 國民經濟에 필수불가결한 商品을 交換性 通貨로 輸入할 수 있는 퀴타를 設定해서 潛定的으로 規制할 수 있다.(金昊均, 1981:55) 輸出許可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外國貿易 상대자와의 直接적 契約이 요구되거나, 어떤 商品을 國내에서 유일하게 生産하거나, 經濟的 成果가 外國販賣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한편 價格면에 있어서는 개혁이전에는 國內價格과 國際價格간에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 즉 輸出에 있어선 計劃物量의 供給에만 주력하여, 統制된 가격으로 매입한 商品을 國際市場에서 낮은 가격으로 販賣함으로써 量的 擴大에만 비중이 두어졌다. 반면, 輸入에 있어서는 國際市場 價格으로 매입하여 國내통제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그 差額을 政府가 보상하였다. 또 換率은 商品別로 적용되는 複數換率(multiple exchange rate)이 사용되었다. 改革이 후에 있어서는 國內價格과 國際價格간에 연계가 圖謀되었는데, 商業換率體系가 單一化되었으며, 國內價格統制도 완화되었다.⁽¹⁶⁾ 換率은 國내판매로 부터의 收益과 각 輸出市場에 대한 販賣로 부터의 平均收益을 均等化시키는 데 기초해서 설정되었다. 이에따라 기업이 원칙적으로 輸出入 費用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政府補助 自體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즉, 特定商品의 國內生產費用이 輸出價格를 超過하는 경우 短期的으로 이것을 막기위해 補助金이 支給되었는데 그 의도는 同期間동안 費用構造의 改善을 圖謀하자는 데 있었다. 또 輸入에 있어서는 國際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補助金이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는 國家財政에 때로 큰 부담을 주

(15) 수출입 기업의 다수는 순수히 상업기업이기 보다는 生産기업의 형태를 띠었다.
D. Granick, *Enterprise Guidance in Eastern Europe*, Princeton Univ. 1975,
p. 273.

(16) 全面的 統制에서 自由價格, 制限價格, 固定價格의 세가지 범주가 성립되었다.
P.G. Hare, "Industrial Prices in Hungary, Part II," *Soviet Studies*, vol. 28, 1976, p. 370.

었다.

한편 1973年 國際油價波動이후 均衡을 유지해오던 對서방 國際收支가 交易條件의 악화에 따라 慢性的인 大規模의 赤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輸出증大를 위해 포린트(Forint)貨를 빈번히 評價切下하였으나 原料, 半製品, 農產品 등 주요 輸出品의 價格彈力性이 낮았기 때문에 實效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높은 輸入依存度를 면치못하고 있는 헝가리 經濟에 國際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加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World Bank, 1983:62) 이러한 交換性 通貨의 부족에 따른 國際收支 압력문제로 인하여 輸入에 있어서는 統制가 강화되었고, 輸出에 있어서는 換率의 價格效果를 통해 輸出競爭力を 提高시키는 한편, 輸出物量면에서도 영향을 주도록 製造業品의 質的 向上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追求되었다.

헝가리에서는 對外經濟協力강화의 일환으로 外國企業과의 合資會社 設立이 허용되고 있는데 外資導入法에 따라 실시되며 다양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條件은 合資會社 設立을 위한 定款에 의존하며, 최종적으로 財務省 長官의 認可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부과된다. 使用通貨는 定款에 명시되어 있으며, 헝가리 中央銀行은 外國資本이 出資 또는 利益으로 計上한 金額의 海外送金을 인정하고 있다. 1977年 이전까지는 製造業 부문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업, 기술개발 및 서비스 부문에 한하여 허용되었으나 그후 전부문으로 확대되었다. 外國資本 參加비율은 일반적으로 최대한 49%로 規定되어 있으나 金融,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財務省 長官이 承認하는 경우 同規定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海外經濟研究所, 1980:24-2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헝가리의 對外部門의 政策變化는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런 傾向은 外國으로 부터의 교란을 국내에 波及하지 않으려는 意圖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헝가리 經濟는 國際分業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經濟成長의 推進力이 된다고 보고, 광범위한 開放政策을追求하고 있다. 그러나 그 成功여부는 国내經濟의 體質改善이 얼마만큼 이러한 對外經濟 部門의 改革을 뒷받침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3. 소 련

소련의 計劃經濟는 社會主義國內에서 가장 오랜 歷史를 갖고 있으며 특히 다른 東歐諸國에서 一種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 거의 1950年代 까지 스탈린式의 강력한 中央集權의 統制經濟를 유지하며 있으며 資源의 動員에서 부터 配分에 이르기까지 國家計劃委員會(GOSPLAN : The State Planning Committee)에 의하여 事前에 계획되는 이론과 計劃經濟의 原型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理論定立도 시도되었다.⁽¹⁷⁾

그러나 이미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스탈린의 更有的인 모델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擡頭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브레즈네프, 코시긴 政權에 의하여 1965년 최초로 公式的인 次元에서 「經濟改革」이 추진되었다. 이로부터 소련內 經濟改革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보다도 命令經濟가 가져오는 非效率性을 시정하자는 데 두어지고 있다. 즉 價格機構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競爭을 자극하며 나아가 自律性의 제고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改革의 必要性은 소련경제가 外延的 成長으로 集約的 成長(intensive growth)의 단계로 이전함에 따라 더욱 強調되었다. 1967년 코시긴 정책의 일환으로 着手된 國營企業內 自律權 導入, 利潤概念 確立, 要素費用 計算,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動因 提供 및 價格體系의 再整備 등은 사실 E. Liberman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尹鎬範, 1987:83). 이와 함께 60년대까지 추구되어 왔던 重工業優先 開發을 내용으로 하는 극히 편향된 不均衡成長戰略도 再考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초 한 때 經濟改革의 推進이 中斷된 적도 있으나 그후 1973년 工業管理改革이 시도되었으며 그리고 1979년 「決定 第695號」의 채택에 따라 計劃化와 經濟實績의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안드로포프가 집권한 1983년 1년여 기간에도 農業集團請負制 및 作業班方式의 개선, 그리고 工業部門에서의 改革實驗을 비롯하여 經濟運營의 改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다.⁽¹⁸⁾

(17) 이미 引用한 著書나 論文들 이외에도 國內에서 發刊된 安澤源, 소련경제의 문제점과 개혁운동 I 및 II, 「中蘇研究」, 漢陽大學校, 9권 1호 및 2호, 1985, 참조.

(18) 產業研究院, 「소련 經濟改革의 現況과 展望」, 1985. 9, 참조.

그러나 이번 고르바초프에 의한 經濟改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經濟 全分野에 걸쳐 幅넓게 그리고 심도있게着手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1920년대초 新經濟政策(NEP), 1968년 헝가리의 新經濟에 카니즘 및 1982년 이후 폴란드의 改革 등과 비교되고 있다.

지난 1987년 7월 말 소련 共產黨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서 採擇된 「經濟運營의 基本 再編成」은 우선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中央計劃의 再調整, 인센티브의 提供 및 피상적인 分權化를 훨씬 넘어서는 실질적인 改革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 또 同改革은 헝가리나 폴란드의 경우와 같이 그것에 끝나지 않고 1987~90년간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실현된다. ⁽¹⁹⁾

고르바초프가 이와같이 근본적인 改革을 추진하게 된 背景은 이제껏의 시도가 하등의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東歐諸國과 함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나 기술개발의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980~1985년간 연평균 소련의 經濟成長率(순물질생산 기준)은 3.6%, 총 투자율 3.2% 및 고용증가율 0.7%에 위치하고 있다. (UN, 1987) 이는 美國에 비할 때 소득수준에 있어서 40~50%, 그리고 消費面에서 1/3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서豫想되는 경기침체는 소련으로 하여금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은 두가지 중요한 經濟目的을 갖고 있다. (Hewett, 1986; Aganbegian, 1986; Abalkin, 1987; Nove, 1987; Manevich, 1987)

첫째, 成長의 促進을 위하여 效率性을 增大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革新을 가져올 수 있도록 競爭과 기술개발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經濟安保를 增進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고용의 質的改善, 가격안정 및 生活水準의 向上 등이 강조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래 이미 많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결정이 채택될豫定인데 이들은 다음의 두가지 카테고리로 分類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효율성과 產業民主主義를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들로서 市場指向의 價格形成, 內部 財源調達에 의한 企業活動 및 근로자에 의한 經營陣選出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物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非效率的側

(19) 개혁과 관련된 정보는 例로,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July~Aug. 1987, 및 蘇聯東歐貿易會, 經濟速報, 1987.7~8 참조.

面을 除去하고 또 「현실적인 가격체제」를 도입하므로서 경제적 성과를 보다 「可視化」(transparent)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다음, 정부의 직접적인介入措置들을 들 수 있다. 例로 中央集權的 配分方式에 의한 外換 및 投資信用政策, 임금 및 物價에 대한 調整・規制政策, 失業防止 및 경제불평등 解消를 취지로 하는 政府補助 및 租稅政策, 그리고 經營陣 任命에 대한 黨委員會 및 政府의 同意權 등을 들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經濟改革이 취해질 수 있는 背景은 中央集權的 經濟計劃과 市場이 獨立할 뿐만 아니라 서로 調和를 이룰 수 있다는 哲學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1930~40년대 이후 Taylor, Lange, Lerner, Brus 및 Kornai 등에 의하여 展開되어 온 理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企業들에게 命令的 計劃의 강요를 포기하고 더욱 의사결정權을 分散하므로서 市場指向의 社會主義經濟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推進되고 있는 소련의 經濟改革은 對外經濟政策面에서의 구조적 轉換을前提로 하고 있다.⁽²⁰⁾ 더구나 經濟成長의 促進을 위한 수단으로서 技術開發에 力點이 두어지고 있으며 機械部門을 中心으로 한 重工業優先政策이 심화될 예정이므로 對西方 新技術 및 施設財導入에 따르는 外貨所得增大的 目的을 고려해서라도 開放政策과 輸出促進이 要請된다.

몇가지 例를 듣다면 이미 1986年 7月 輸出賞與金制度(export incentive scheme)가 採擇되었는데 그 내용은 輸出目標의 達成을 초과하는 部分에 대하여 해당기업의 自由로운 活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制度는 또 輸出構造面에서 從前의 一次產業으로 부터 기계 및 최종 가공재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以外에도 貿易企業의 自律權을 擴大하기 위한 조치로서 1987년 이후 貿易公團(FTO)이 직접 外國企業과 去來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되고 있으며 西方과의 企業合作可能性이 검토되고 있다. 關聯法이 제정된다면 外國企業의 소련內 자유로운 活動까지도 豫想하고 있다.

4. 中 國

中國은 建立 初期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經濟計劃의 수립 및 執行에 있

(20) 例로 *Foreign Trade of USSR* 및 *Business Eastern Europe*, 1986. 이후 참조. 그 이외에도 產業研究院, 소련의 對外貿易과 金融協力, 1986. 5는 소련의 對外貿易制度, 政策 및 對外金融制度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서 省의 自律權이 다소 안정되기는 하였으나 총체적으로 소련式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 취지 역시 사회주의적 국가경제의 建設에 두어졌다.⁽²¹⁾ 스탈린의 이른바 一國社會主義를 건설(自力更生)하기 위하여 重工業 生產에 비중이 두어지므로 농업, 경공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정체는 점차 成長의 隘路로 등장하였다. 大躍進運動(1958~1960)이나 文化革命(1966~76)과 같이 紅의 支配의 時期를 거치는 동안 理念 및 政治優位에 따라 經濟的 價格構造의 歪曲을 비롯하여 갖가지 非效率性이 누적되어 왔다.

모택동의 死亡과 함께 鄧小平體制가 탄생한 후 1978년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部門에서의 4大現代化 計劃의 採擇과 함께 黨中央委員會 11期 3中全會에서는 經濟計劃과 對外開放政策의 本格的인 추진이 決定되었다. 1984년 10월, 12期 3中全會가 채택한 「經濟體制 改革에 관한 中共中央의 決定은 中國經濟의 構造적 改革의 추구를 의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들은 社會主義諸國中 가장 급속한 变혁을 가져오고 있다.⁽²²⁾

中國式의 社會主義經濟로 불리우는 同 改革은 한마디로 社會主義的 市場經濟의 模型이라 할 수 있다.⁽²³⁾ 이를 체계화한다면 社會主義의 生產力의 발전을 위한 체제로서 「計劃的 商品經濟」를 指向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計劃」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商品經濟」를 도입하므로서 兩者間 調和를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즉 「計劃」과 「市場」을 併存시키므로서 社會主義的 理想인 평평을 추구하나 이와 함께 「市場機能」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의욕적인 改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生産수단의 소유면에서는 農業이나 商業部門 등 制限된 법위내에서 私有가 인정되기는 하나 原則的으로 公的 所有를 유지한

(21) 예로 Xue Muqiao, *China's Socialist Economy*, Foreign Language Press, Beijing, 1981. 및 安錫敎編, 「中國經濟의 政治經濟學」, 比峰出版社, 1986 참조.

(22) 同 決定의 번역은 中蘇研究, 前揭書, 8권 4호, 1984~85겨울에 게재되어 있음.

(23) 이와 관련하여 金擇元, “中國사회주의 이념의 변화와 지속,” 同上, 10권 4호, 1986/87, p.9 이하 ; K. Yiren, Observation on Some Questions in the Building of Socialis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ese Economic Studies*, Vol. 20, No. 2, Winter 1986/87, p.13以下 ; Chang Pao-Min, *China, Problems and Pitfalls of Economic Reform*, Asia Pacific Community, No. 31, Winter 1986; *China's Economy*, *The Economist*, Aug. 1, 1987; Liu Guoguang, Unifying Planning and Marketing, *Beijing Review*, No. 41, Oct. 12, 1987; Reform and Renew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2 Nov. 1987 등 참조.

다. 반면 分配方式에 있어서는 勞動 및 能力에 따르므로 富 및 所得面에서 不平等이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다. 더구나 資源分配에 있어서는 命令的 性格이 축소되며 計劃은 指導的・誘因的 役割에 보다 바탕을 두게되고 나아가 가격「메카니즘」에 더욱 依存하게 된다.

初期 農業部門에서 改革이 급속히 추진되었는데 그 대상은 價格, 農業經營組織, 農業構造 및 流通構造로 擴大되었다. 또 個人農에 의한 生產체업체가 지배적인 추세로 확산됨에 따라 建國後 기초를 이루어온 人民公司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농업부분에서의 成功的인 遂行에 따라 改革은 第2段階로 都市部門으로 옮겨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企業의 自主權, 金融部門, 財政, 稅制, 企業管理體制, 價格決定 및 體系, 그리고 資金政策面에서 큰 幅의 改革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 中央計劃의 分權化 뿐만아니라 省의 水準에서도 自率權이 擴大되고 計劃과 市場間의 조화가 시도되고 있다. (Kueh, 1983; Wong, 1987)

한편, 이러한 改革은 무엇보다도 對外經濟去來面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對西方 貿易, 資本導入 및 直・合作投資는 급속히 증가하여 오고 있다.例로 1970년대末 中國의 總 貿易에서 사회주의제국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4~15%였으나 85년에 이르러 7~8%로 하락한 반면 同期間 先進資本主義諸國의 경우 55%内外에서 거의 60%로 上向되었다. 外資導入에 있어서 역시 1984~85년간 차관도입 89.3% 그리고 직접투자 25.2%의 연평균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 經濟特區를 中心으로 한 合作投資의 경우 1979~1985년간 총 누적액은 거의 5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²⁴⁾

1978년 中國은 對外貿易政策 및 制度의 改革에着手하면서 전반적인 經濟改革 以前에 開放政策으로 전환하였는데 초기에는 外國經濟貿易部가 獨占管理하던 對外貿易權의 分權化로 부터 出發하였다. (產業經濟研究院, 1985: 44) 이어 1981년 國內 通貨(人民幣) 價值를 대폭적으로 평가절하(83%)하였으며 輸出入許可制를 다시금 도입하였고 그 후 國제수지의 壓力を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中國의 元貨는 계속 價值가 下落하여 오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서 貿易政策面에서 취해진 중요한 조치들로서 對外經濟貿

(24) 經濟特區의 “운영에 關하여는 產業研究院, 中共經濟特區에 關한 研究, 1985. 6, 참조.

易部의 地方支部에 대한 權限移讓 및 산하 貿易公司의 自律權擴大, 輸出入仲介制度의 新設, 그리고 貿易公司와 生產企業間 연결을 통한 輸出入 링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貿易政策 및 制度의 의욕적인 改革에도 불구하고 實效를 거둘 수 있으려면 아직도 허다한 課題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기업이나 산하 지방정부기관간에 기능분할의 문제를 비롯하여 무역체제의 개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부족, 산업, 무역, 기술 및 國內流通構造間 연계, 輸出增大的 수단, 貿易의 신축적인 운영 그리고 輸出入 關聯 專門家 養成 등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Tuobin, 1987:27)

그 밖에 對外開放 以後 中國經濟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지속하여 온 部門中의 하나가 資本去來, 즉 外貨導入 政策이다. 公共 및 商業借款 또는 直合作投資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며 1980년 IMF加入, 81년 中國投資銀行 設立, 그리고 86년 ADB加入까지 실현하였다. 外資導入面에서 採擇된 중요 法規를 보면 1979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의 制定 이래 86년까지 1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產業研究院, 1987:15) 그 내용은 대부분 外國의 資本 및 技術導入 促進을 위한 特惠의 제공으로서 다른 開途國의 경우와 비교된다.

그러나 아직껏 社會主義 理念에 따르는 制約 이외에도 計劃經濟와의 갈등, 經驗未熟 또는 國際收支 壓力 등이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金擇元

1987 “中國 사회주의 이념의 변화와 지속,” 「中蘇研究」, 10권 4호, 한양대학교
金昊均

1981 「東歐 코메콘諸國의 對外貿易研究」, 國際經濟研究院
南炫旭

1984 「유고경제와 對外貿易」,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社會科學研究所

1987 Economic Systems and Reforms in a Changing World, 「社會科學과 政策
研究」 9권 2호, 서울대학교
產業經濟研究院

1985 「中共市場과 企業進出戰略」
產業研究院

1983 「月刊 共產圈 經濟動向」 1권, 6호, 12月

1984 「月刊 共產圈 經濟動向」 1권, 2호, 6月; 1권 4호, 12月

- 1984 「東亞貿易의 現況과 展望」, 번역시리즈 36호, 10月
1985 「소련 經濟改革의 現況과 展望」, 9月
1986 「소련의 對外貿易과 金融協力」, 5月
1987 「共產圈諸國의 經濟改革과 對外開放」
- 安錫教 編
1986 「中國經濟의 政治經濟學」, 比峰出版社
- 安澤源
1986 “소련경제의 문제점과 개혁운동 I 및 II,” 「中蘇研究」 9권 1호, 2호, 한양 대학교
- 尹鎬範
1987 “소련의 企業管理와 價格決定體系,” 「中蘇研究」, 11권 2호, 한양대학교
- 海外經濟研究所
1980 「코메 콘諸國間의 政治·經濟協力 關係分析」
- Abalkin, L.
1987 “The Main Trends in Economic Policy,” *Social Sciences*, Vol. 18, No. 3.
- Adamovic, L.
1982 “The Foreign Trade System of Yugoslavia,” in Stojanovic, R. (ed.), *The Functioning of Yugoslav Economy*, Spokesman.
- Aganbegian, A.
1986 “The Strategy for Accelera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A Journal of Transition*, Fall.
- Boltho, A.
1971 *Foreign Trade Criteria in Socialist Econom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nstein, M. (ed.)
1975 *Economic Planning, East and West*, Ballinger Publishing Co.
- Brown, A. and Marer, P.
1973 “Foreign Trade in the East European Reform,” in Bornstein, M. (ed.), *Plan and Market*, Yale Univ.
- Brus, W.
1979 “The East European Reforms: What happened to Them,” *Soviet Studies*, Vol. 31.
- Chang Pao-min
1986 *China, Problems and Pitfalls of Economic Reform*, Asia Pacific Community, Winter.
1987 “China's Economy,” *The Economist*, Aug. 1.
- Csikos-Nagy, B.
1971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Price System in the Trade between CMEA Countries,” in Vajda, I. and Simai, M. (eds.), *Foreign Trade in a Planned*

-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ach, D.
- 1984 *La Crise dans le Pays de L'Est*, Editions la Découverte, Paris.
- Fallenbuchi, Z.M. & Macmillan, C.H.
- 1980 Pergamon Press.
- Foreign Trade of USSR, 1986.
- Granick, D.
- 1975 *Enterprise Guidance in Easter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 Gregory, P.R. and Stuart, R.C.
- 1986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Harper & Row.
- Hare, P.G.
- 1976 "Industrial Price in Hungary, Part II," *Soviet Studies*, Vol. 28.
- Hewett, E.A.
- 1986 "Reform or Rhetoric: Gorbachev and Soviet Economy," *The Brookings Review*, Fall.
- Höhmann, H.H., Kaser, M. & Thalheim, K.C. (eds.)
- 1975 *The New Economic System of Eastern Europe*, Californica University Press.
- Holzman, F.D.
- 1976 *International Trade under Communism*, Basic Book.
- Horvart, B.
- 1971 "Yugoslavia Economic Policy in the Post-War Perio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1.
- Kim Cae One
- 1987 "Socialist Economic Reform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社會科學과政策研究」, 9권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Kuczynski, W.
- 1979 "Planning and Economic Reform under Socialism," *Soviet Studies*, Vol. 31, October.
- Kueh, Y.Y.
- 1983 "Economic Reform in China at Xian Level," *The China Quarterly*, No. 96, Dec.
- Liu Guoguang
- 1987 "Unifying Planning and Marketing," *Beijing Review*, No. 41, Oct. 12.
 - 1987 "Reform and Renew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2 Nov.
- Lange, O. and Taylor, F.M.
- 1938 "On the Economic Socialism," in Linppincott, B.E.(ed.), *On the Economic Soci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 Lerner, A.P.

- 1944 *The Economics of Control*, N.Y.
- Manevich, E.
- 1987 "Means of Restructuring the Economic Mechanism," *The Soviet Review*, Fall.
- Marx, K.
- 1961 *Capital*, Moscow.
- Marx, K. and Engels, F.
- On Colonialism*,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s.
- Muqniao, Xue
- 1981 *China's Socialist Economy*,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 Nove, A.
- 1987 "Radical Reform: Problems and Prospects," *Soviet Studies*, Vol. XXXIV, No. 3, July.
- Quigley, J.
- 1974 *The Soviet Foreign Trade Monopoly*, Ohio State University.
- Selucky, R.
- 1972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Praeger.
- Tuobin, Z.
- 1987 "The Problems of Reforming China's Foreign Trade System, Chinese Economic Studies," *A Journal of Translation*, Summer.
- U.N.
- 1985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85~86*,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Wilczynski, J.
- 1969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East-West Trade*, F.A. Praeger.
- 1972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Macmillan.
- Wong, C.P.W.
- 1987 "Between Plan and Market: The Role of Local Sector in Post-Mao China," 「사회과학과 경제연구」 제 9 권 제 2 호.
- World Bank
- 1983 *Yugoslavia: Adjustment Policies and Development Policies*.
- 1983 *Hungary: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A World Bank Country Study.
- Yiren, K.
- 1986~7 "Observation on Some Questions in the Building of Socialis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ese Economic Studies*, Vol. 20, No. 2, Winter.